

영동와인·일라이트호텔

협업 설맞이 프로모션

영동군농업기술센터는 설 명절을 맞아 영동와인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해 영동와인연 구회, 레인보우주식회사(일라이트호텔)와 협업하여 '설맞이 영동 와인 시음·판매 행사'를 추진한다.

행사는 14일(토)부터 18일(수)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일라이트호텔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관내 5개 와이너리(도란원, 불화농장, 컨츄리 와이너리, 마미영농조합법인, 갈기산농업회사법인)가 참여해 영동 와인을 선보이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시음 행사와 현장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동군농업기술센터는 이번 협업을 통해 지역 와인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호텔 이용객과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지역 특산물인 영동 와인을 접할 수 있도록 행사 기획과 운영을 지원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발성 홍보를 넘어, 지역 와인산업과 관광을 함께 키우는 협력 모델로 확장할 계획이다. 군은 앞으로도 체험·관광·판매가 연결되는 실질적인 판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보리·밀 등 생육재생기

포장관리 철저 당부했다

충북농업기술원(원장 조은희)은 1월 한파 이후 보리·밀 등 월동 맥류의 생육 회복 시기를 맞아, 생육재생기 포장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올겨울 청주 지역은 1월 중순까지 영하 10°C 안팎의 낮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일부 보리·밀 재배지에서 잎들이 노랗게 변하는 등 겨울철 저온 영향이 관찰됐다. 이에 따라 봄철 생육이 본격화되는 시점의 관리가 수량과 품질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맥류의 생육재생기는 겨울 휴면 이후 일평균 기온이 0°C 이상으로 약 5일 이상 유지되고, 뽑아낸 포기에서 새 뿌리가 약 2mm 정도 자라는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에는 온기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안정적인 생육과 수량 확보에 중요하다. 온기를 생육재생기 판정 후 10일 이내에 주는 것이 적절하며, 요소 비료는 10a당 약 10kg 정도가 적정량이다. 겨울철 저온이나 과습의 영향을 받은 포장에서는 요소 2% 희석액(물 20L 기준 요소 400g)을 2~3회 엽면시비하면 생육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봄철 강우에 대비해 배수로를 미리 정비하고, 겨울 동안 토양이 들뜬 포장은 담합 작업을 실시해 뿌리 활착을 돋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관리가 초기 생육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임주현 연구사는 "기본적인 포장 관리를 철저히 하면 봄철 생육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충남도, 국민성장펀드 유치 힘 쓴다

금융위·산업은행 주관 '국민성장펀드 사업설명회' 150조 규모 정책펀드 활용



충청남도가 지역 산업·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민성장펀드' 투자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충남도는 12일 아산 모나밸리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이 '찾아가는 국민성장펀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성장펀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이억원 금융 위원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장민영 기업은행장, 도내 관련 기업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안 및 신청법 안내, 지방 우대 정책 금융 소개, 충남 펀드 추진 현황, 도내 기업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등 순으로 진행됐다.

국민성장펀드는 민간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기반 투자나 고위험 첨단산업 투자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부담하는 미중물 역할을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여대 정책펀드 중 최대 규모인 150조 원으로 조성되며, 오는 2030년까지 앞으로 5년간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차,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

업 가운데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대형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펀드 전체 조성 금액 중 40%인 60조 원 이상이 비수도권에 배분될 예정으로, 5국 3특 중심의 지역산업 생태계 혁신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성장펀드는 △직접 지분 투자 △간접 지분 투자 △기반(인프라) 투·융자 △초저리 대출 등 4개 유형으로 운용된다. 신청은 한국산업은행 누리집 내 국민성장펀드 전용 폐이지를 통해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 도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최대한 많은 도내 기업이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산업은행과 긴밀히 협력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전 부지사는 "국민성장펀드는 도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거대 자본을 활용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좋은 기회"라면서 "도내 기업이 지역을 넘어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대한민국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기업,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문화공간 '부강마실공방' 문 열어

도시재생사업 34억 원 투입, 문화향유기회 확대 기대

세종시 부강면에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문화·예술 경향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부강마실공방이 문을 열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12일 최민호 시장과 시의원,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강마실공방' 개관식을 열었다.

부강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부강마실공방은 국시비 총 34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983㎡ 규모로 조성됐다. 공방 1층에는 마을관리소, 공구대여소, 접수리공방 등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가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2층은 주민들의 문화·예술적 요구를 충족하고 다양한 창작 활동이 가능한 공예공방, 창작실, 다목적 강당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부강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마을영화관·청의융합예술교실, 접수리공동체 교육 등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돼 부강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진 기자

최민호 시장은 "부강마실공방은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특색있는 지역문화를 만들어 가는 도시재생의 사랑방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나아가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모델로 자리매김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민호 시장이 명절 연휴에도 시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근무하는 경찰과 소방 현장을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우선 세종남부경찰서 금남파출소를 방문해 귀성·귀경길 교통 관리와 생활 치안 유지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근무자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이어 세종북부소방서를 찾아 전통시장과 산업단지 밀집 지역인 북부권역 화재 예방과 특별경계근무 테세를 확인하고, 허심탄회한 소통을 가졌다. 특히 최민호 시장은 명절에도 현장을 묵묵히 지키면서 시민 안전에 힘쓰는 치안·소방 근무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며 사기를 높였다.

이현진 기자

중구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협약



'연휴에도 막힘없다' 대전시 특별교통대책

승용차요일제 일시 해제,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 허용…시내버스 감자 최소

대전시는 설 연휴 기간 시민과 귀성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5일의 비교적 짧은 연휴 기간 동안 귀성객 및 여행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는 자치구와 협동으로 교통대책상황실을 운영해 교통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국립대전현충원, 대전주모공원 및 삼고동 천주교묘지 방문객 편의를 위해 해당 목적지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6개 노선의 감자를 최소화하여 운행한다.

또한 교통정체 및 혼잡이 예상되는 주요 교차로와 역·터미널·백화점·전통시장 등에는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를 집중 배치해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차량 고장이나 사고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당직 자동차정비업소

를 운영하며, 2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승용차요일제 운행 제한을 일시 해제하여 시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연휴 기간 시와 자치구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동시장 등 7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를 한시적으로 주차 허용하는 등 시민 생활 불편 해소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남시역 대전시 교통국장은 "귀성객과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을 마련 했다"라며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행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농업기술센터는 12일 (목)부터 연중 무상으로 농업미생물을 150톤을 매주 공급한다.

이채봉 기자

대전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공급신청 가능하고, 공급하는 농업미생물은 복합균(작물용·생활용)과 유산균·효모균(축산용)이다

공급 일정은 ▲복합균(작물용·생활용)은 매주 화·목요일에 제공되며, ▲유산균·효모균(축산용)은 매주 화요일에만 제공된다. 공급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신청자는 농업기술센터 방문 시 대전 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미생물을 담을 용기를 지참해야 하며, 농업인은 농지대장·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임대차계약서 중 1종을 제시하면 영농규모에 따라 매월 최대 196리터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생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및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대상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재위탁 선정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2개소(문화2동 주공어린이집, 목동 한사랑어린이집)와 교육부 심의를 통해 장기임차 전환이 확정된 어린이집 4개소(목동 동화나리어린이집·목양어린이집, 태평2동 늘사랑어린이집·아이세상어린이집)이다.

중구는 신규 전환 4개소를 포함해 2026년 말까지 총 37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구는 앞으로도 지역 내 공공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채봉 기자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위·수탁 협약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가 소외된 이웃을 찾고 돕는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에 고립된 생활로 지원이 절실한 위기 가구 등이다.

주민이 신고한 대상자가 현장 조사 및 상담을 거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신규 선정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채봉 기자

소망을 담아,
새로운 시작을!
설날,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여러분의 꿈도 빛나기를 바랍니다.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